

01.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10.29)은 '감동'(시 50:23)의 주제와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가 되도록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모든 예배와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추수감사주일 당일 1부 예배 후부터 국밥 나눔 한마당이 있습니다.
- ② 정성껏 준비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난 한 해의 은혜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물 봉헌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국밥 나눔 행사용 헌물(소, 무, 양념류 등)
 - 특별 헌물(과일, 채소, 대형 호박 등)
 - 야외 헌물대에도 자유롭게 헌물하실 수 있습니다[헌물기간: 10.24(화) - 29(주일)].
 -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계좌번호
 - 우리는행: 1005-704-090027 (예금주: 대한예장명성교회)
 - 하나은행: 561-910010-79504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명성교회)
- ③ 행사안내
 - 감동일기: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감동일기가 준비되었으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제공: 월드비전).
 - 감동부스: 우리의 감사를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감동부스가 예루살렘성전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 ④ 추수감사주일 당일에는 베들레헴성전 앞마당과 공원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가까운 지역의 성도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예배

주일낮예배 5부 말씀은 최정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께서, 주일찬양예배 말씀은 클린턴 E. 아놀드 목사(Rev. Dr. Clinton E. Arnold, 탈봇신학교 前 학장, 現 신약학 교수)께서 전해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사랑의 나눔 상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명성교회 성도들과 사마리아퍼스가 함께 5,000개의 사랑의 나눔 상자를 우크라이나, 필리핀, 몽골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국제배송료 및 제자 양육에 필요한 후원금은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 배포일자: 10.22(오늘), 29(주일) · 수거일자: 11.5(주일), 12(주일), 19(주일)
· 배포 및 수거장소: 베들레헴성전 앞마당

04. 제85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

제85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가 10.24(화) 오전 9시 마천세계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주 신생아 4명

명성교회 출생 신생아(2023년 1월 - 현재) 총 148명

지난주말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사세요
다니엘 1장 8-9절 | 김삼환 원로목사

성경은 인류 역사에 위대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란 또는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나라는 성경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의 배경이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터,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다리오, 에스터의 남편 아하수어로, 아닥사스다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최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위대했지만, 성경은 이들을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팔려 온 다니엘이 더 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셔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하시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데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성공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돈을 벌려고도 하지 않았고, 바벨론에서 출세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시며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정하여 살면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발탁되어 삼 년 동안 바벨론의 교육을 배우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곳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수많은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해주십니다. 시편 107편은 오늘날 세계적 위기도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불행과 슬픔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내려주십니다.

섬기는 이들

원로목사 김삼환

담임목사 김하나

협동목사 김도훈 노영상 배진태 안주훈 최윤배

교육목사 권오병 김은혜 박고운 이승갑

목사

김남수 김동민 김동욱 김동진 김득열 김봉기 김석호 김선우 김예셀 김요한 김윤호 김은영 김은자 김준환 김춘희 김희영 류현웅 문명석 문승진 박영호 박우진 박현규 방유경 백재용 서찬성 손일재 손지목 송한솔 신동신 신재희 신충현 우종현 유태규 윤석진 이경민 이경환 이대선 이덕기 이서구 이은세 이재민 이정수 이지명 임용섭 임은목 임지환 장중민 정구일 정홍배 조성민 조재영 천혜림 최대열 최예녹 한바울 한정민 허승환 황대석 황정준

전도사

권예찬 권혁현 김민음 김석현 김승택 박경애 박근우 박보하 박재현 이상인 이 성 이울관 이준민 이준식 임기도 정구현

교육전도사

강찬용 김용문 김웅기 김윤영 김준영 김하성 문태은 박경민 박초롱 손찬영 송영호 이민기 이성준 이성현 자 팻 장건희 차주현 최하경

디아스포라

박경희(태국)

오직주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8절

